

화학연구원, 신화학실용센터 적극 지원

신화학 융합화학 기술 및 국내외 화학관련 특허 원천기술의 울산기업 이전 및 실용화를 총괄하는 <신화학 실용센터>가 건설된다.

울산시와 한국화학연구원은 10월1일 오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신화학실용센터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.

양 기관은 업무협약서에서 한국화학연구원이 신화학실용센터 건립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공간, 운영비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지원키로 했다.

또 한국화학연구원은 신화학실용센터 건립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울산의 화학분야 R&D중핵기관으로서 지역기업가 필요로 하는 고부가 첨단 화학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화학 R&D 허브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.

신화학실용화센터는 총 사업비 342억원이 투입돼 중구 다운동 화학혁신단지 연면적 9994㎡, 연구인력 45명 규모로 2009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2010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08/10/01>